3-5세 형제간 갈등에서의 어머니 중재와 효과

Mothers' Interventions and Their Effects in Conflicts between Siblings Aged 3-5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엄 정 애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김 희 진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chai Univ.
Assistant Professor : Ohm, Jung-A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Hee-Jin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방법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others intervened in conflicts between siblings aged 3-5.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1 sibling dyads and their mothers. The siblings were asked to carry out 4 different tasks. The sibling conflicts occurring during the tasks and their mothers' interventions were observed and recor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tended not to intervene in sibling conflicts. Second, when they intervened, they tended to use strategies considered less desirable such as 'parental control'. Third, although small in numbers, some mothers intervened in sibling conflict in a positive way. In such cases, sibling conflicts ended in compromise and reconciliation. The implications for parent education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형제관계(sibling relationships) 형제관계의 질(siblining quality), 형제간 갈등(sibling conflicts), 어머니 개입(maternal interventions)

Corresponding Author: Hee-Jin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2114, Fax: 82-2-393-5903 E-mail: heejin88@ewha.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갈등은 둘 이상의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필연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방향이 달라진다(Laursen, Hartup, & Koplas, 1996). 유아기의 어린이들은 주로 부모나 교사 같은 가까운 성인, 형제, 그리고 또래와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비록 부모나 교사 같은 성인과 형제와 또래 같은 어린이들과 경험하는 갈등의 양상은 다르지만, 갈등은 어린이로 하여금 대인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실질적 지침을 얻고,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갈등의 해결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Miller, 1993).

본 연구는 유아기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 중 형제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형제들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고 대개는 연령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Furman & Buhrmester, 1992; Tesla & Dunn, 1992). Ross, Filyer, Lollis, Perman과 Martin(1994)은 유아기 형제사이에서 시간 당 6회 이상의 갈등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갈등은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갈등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Shantz, 1987). 갈등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갈등 해결 방식이다(Cummings, 1994). 아이디어 창출, 협상, 양보 같은 문제 해결적 전략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때는 갈등이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면, 유아들은 형제간 갈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의 역할(Vandell & Bailey, 1992)과 타인의 관점(Dunn, Brown, & Beardsall, 1991)을 이해하게 되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 신체적 폭력 같은 파괴적 전략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때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면, 형제 관계의 질이 손상되고(Rinaldi & Howe, 1998), 청소년기(Richman, Stevenson, & Graham, 1982)와 성인기(Patterson, 1982)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며, 성인이 되어 가정폭력을 행사할 가능성(Gelles & Cornell, 1990)도 높아진다.

형제간 갈등은 갈등 해결과정에 부모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또래간 갈등과 다르다. 많은 부모들은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형제가 싸우기 시작하면 신경이 날카로와지고 걱정을 하고 갈등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노력한다. 부모의 개입은 형제간 갈등의 진행과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 유아와 부모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형제 중 하나가 부모가 불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편애'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형제관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도 나빠지게 된다. 가족체계이론에서도 가족내의 하위체계(예: 부부, 부모-자녀, 형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 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의 특성과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한다(Feiring & Lewis, 1978; Munuchin, 1988).

부모가 갈등에 개입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다. 일부의 학자들은 부모가 갈등에 개입할 경우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모가 동생 편을 들면 형제관계 힘의 균형이 깨지고(Felson & Russo, 1988), 형제들끼리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뺏기 때문에, 갈등해결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의 발달이 저하(Brody & Stoneman, 1987)되며, 형제관계의 질도 나빠질 수 있다(Corter, Abramovitch, & Pepler, 1983)고 한다.

반면, 일부의 학자들은 유아기 어린이들은 갈등해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Dunn, 1988), 갈등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모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공평의 개념이 무시되고 윗형제만 만족하는 방향으로 갈등이 해결(Ross 등, 1994) 되지만, 부모가 개입했을 때는 갈등의 강도가 약해지고(Perman & Ross, 1997; Valsiner & Cairns, 1992), 이유대기, 사회적 규칙 언급하기, 달래주기 같은 긍정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되며(Dunn & Munn, 1987), 2년 후 다시 관찰

했을 때에도 형제들끼리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확률이 높았다(Siddiqui & Ross, 1999)고 한다.

이와 같이 학자들은 부모의 개입에 대해 찬반을 주장하지만 단순히 부모의 개입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 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부모의 개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부모의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개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결론이 학자마다 다른 것도 부모 개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개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형제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한다. Phinney (1985)는 5세 유아와 동생간의 갈등을 관찰한 후 형제간 갈등은 단순한 주장과 맞주장이 반복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협상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Vandell과 Bailey(1992)도 나이 어린 형제들은 갈등 해결책을 찾는 대신 단순히 물러서거나 갈등을 흐지부지 끝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Perman과 Ross(1997)도 나이 많은 형제 쌍이 나이 적은 형제 쌍보다 더 세련되고 건설적인 협상전략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였다. Kramer, Perozynski와 Chung(1999)의 연구에서도 형제 쌍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개입하지 않으면 부정적 행동을 많이 한 반면, 형제 쌍이 연령이 높을 때는 오히려 부모가 개입하면 형제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적어졌다. 따라서 형제의 연령이 어려 갈등해결기술이 미약할 경우 부모의 개입이 더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Kojima(2000)의 연구에서도 형제 중 동생의 연령이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어머니가 더 많이 개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건설적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조망수용능력이 발달 중에 있는 3세에서 5세의 나이 어린 형제 쌍을 대상으로 부모의 개입이 형제간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둘째, 부모의 개입방식이 고려되었다. 부모가 어떤 개입전략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형제간 갈등의 결과가 달라진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부모는 형제간 갈등에 개입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불행히도 부모가 사용하는 전략이 모두 긍정적인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형제간 갈등과 그 이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Howe, Aquan-Assee와 Bukowski(2001)는 '상호작용적' '지시적' '예상적' 전략 중 부모가 지시적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2년 후 다시 관찰했을 때에도 형제관계가 더 적대적이고 덜 협동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Siddiqui와 Ross(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전략을 '개입하지 않기', '부모가 갈등 끝내기', '부모의 도움 받아 자녀가 갈등 끝내게 하기'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부모의 도움 받아 자녀가 갈등 끝내게 하기' 전략을 사용했을 경우, 추후의 갈등에서 형제끼리 협상할 확률이 높았다. 즉, 부모의 개입이 반응적, 긍정적, 상호작용적일 때 호혜적인 형제관계가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ody, Stoneman, & MacKinnon, 1986).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부모가 개입한 형제간 갈등과 개입하지 않은 형제간 갈등의 결과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부모개입의 효과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모가 개입한 형제간 갈등 중에서 부모가 개입하기 전과 후에 형제간 갈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형제간 갈등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이윤주(2000)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제 간 갈등과 부모의 개입방식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Kojima, 2000), 우리나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가 형제간 갈등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부모의 개입이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 형제 쌍을 대상으로 부모가 사용하는 개입방식과 전략에 따라 형제간 갈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형제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부모가 개입해야 할 지와 개입한다면 어떻게 개입할 지를 결정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형제간 갈등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양상은 어떠한가?
2. 어머니 개입에 따른 형제간 갈등의 종결양상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중류층 가정에 거주하는 만 3~5세 형제 51쌍과 그들의 어머니이었다. 51쌍 형제들의 성 구성, 첫째와 둘째의 평균 연령, 연령차와 어머니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과제의 선정

형제간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4가지 과제-역할놀이하기, 간식먹기, 하나의 장난감으로 같이 놀기, 사물나누기-가 선정되었다. 역할놀이하기는 다양한 소품이 포함된 놀이감을 제공한 Lamb (1978)의 연구, 간식먹기는 형제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과자와 음료수를 제공한 Brody, Stoneman, McCoy와 Forehand(1992)의 연구, 하나의 장남감으로 놀기는 새롭고 매력적인 놀이감을 함께 가지고 놀 때 형제가 빈번히 싸운다는 Dunn(1983)의 연구결과, 사물나누기는 형제들이 사물을 차지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싸운다는 Dunn과 Munn(1987)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선정되었다.

역할놀이 과제로는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놀 수 있어 다양한 성과 연령으로 구성된 형제들에게 적합한 병원놀이 세트가 제공되었다. 이 병원놀이 세트는 새로 출시된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형제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분이었다. 둘째는 간식먹기 과제로 매력도가 다른 두 종류의 과자, 음료수와 컵이 제공되었다. 과자는 아몬드 빼빼로와 포켓몬스터, 음료수는 오렌지주스와 뿌요소다, 그리고 컵은 일반 컵과 포켓몬스터 컵이 제공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는 포켓몬스터가 유행하던 시기로 형제들은 포켓몬스터, 뿌요소다, 포켓몬스터 컵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었다. 형제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먹도록 1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셋째는 장난감 하나로 같이 놀기 과제로 무선 조정 피카츄가 제공되었다. 무선 조정 피카츄 인형은 보통 피카츄 인형과 달리 색이 선명하고 모양이 정교하여 움직일 때 양 쪽 볼에 빨간색 불빛이 들어와 유아들은 매력을 느꼈고 서로 먼저 가지고 놀려고 하였다. 형제들에게는 5분동안 무선 조정기를 이용하여 놀도록 시간이 주어졌다. 넷째는 사물나누기 과제로 매력도가 다른 모양과 크기의 스티커가 제공되었다. 한 종류의 스티커는 종이로 만들어진 평범한 것으로 크기가 작았고, 다른 종류는 반짝거리는 재질로 만들어진 매력적인 것으로 크기도 약 여섯 배정도 컸다. 형제들에게는 스티커를 나누어 갖도록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표 1> 연구대상 형제와 어머니의 특성

	형제 성구성(첫째-둘째)	형제쌍 수	첫째평균연령	둘째평균연령	연령차
형제	남아 - 남아	12	5.1세	3.7세	1.4세
	여아 - 여아	14			
	남아 - 여아	10			
	여아 - 남아	15			
어머니	평균 연령(표준편차)	33.2(4.5)세.			
	평균 학력(표준편차)	14.8(3.2)년			

2) 자료분석단위

형제간 갈등은 Eisenberg와 Garvey(1981)의 연구를 기초로 정의되었다. 형제간 갈등은 형제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상대형제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함으로써 시작되며, 갈등의 원인이 명백히 해결되거나,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거나, 한 형제가 그 장면을 떠나거나 또는 어머니가 개입해서 종결시키므로써 종결된다. 따라서 형제간 갈등의 분석단위인 에피소드는 갈등이 시작되어 종결될 때까지로 정의되며, 각 형제가 사용한 갈등 해결 전략의 연속으로 구성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형제간 갈등의 에피소드는 159회이었다. 51쌍의 형제 중 12쌍에서는 형제간 갈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갈등이 있었던 39쌍의 형제들은 평균 4.1회의 갈등을 보였다. 159회의 갈등 중 99회(62.3%)는 어머니의 개입 없이 갈등이 해결되었고, 60회(37.7%)는 어머니의 개입으로 갈등이 해결되었다.

3) 형제의 갈등 해결 전략

형제간 갈등 해결 전략은 Perlman과 Ross(1997)가 사용한 갈등 해결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예비연구를 통해 발견된 권위에의 호소와 단순거부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갈등 해결 전략의 범주에 대한 정의와 실례는 〈표 2〉와 같다. 하나의 갈등 에피소드 안에서 형제가 사용한 전략은 모두 분석되었다.

4) 형제간 갈등에의 어머니 개입

형제갈등에 어머니가 개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갈등을 해결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iddiqui와 Ross

〈표 2〉 형제간 갈등해결전략의 범주별 정의와 예

범 주		정의 및 예
건설적 갈등 해결 전략	정당화	상대방의 행동에 반박·저항하는 이유 대기 (예: 안 돼, 너 그 날 먹었잖아! 이번엔 내가 먹을 차례야)
	정교화	세부적인 정보를 교환 (예: 이 피카츄는 앞으로 가는 거니까 앞으로 가게 해)
	제 안	상호 목적 성취를 위한 대안을 제시 (예: 형아 한테 줘~형아가 게임팩 다시 돌려 줄께
	따르기	상대방의 입장에 응함 (예: 알았어)
부정적 갈등 해결 전략	권위호소	권위에 호소 (이르기·권위자의 말을 언급·권위자에게 도움을 요청) (예: 엄마! 윤주가 스티커 안 나누고 두 개 다 가진대)
	단순거부	설명 없는 단순한 거절 (예: 싫어)
	행동유보	상대의 요구에 대한 행동의 답을 지연시킴 (예: 잠깐만, 잠깐만...기다려)
	부정적 언 어	적극적: 놀리기·비난·모욕·협박 등을 사용하여 반대 표시 (예: 똥개 같은 놈)
		소극적: 울기·징얼대기를 사용해 반대 표시 (예: 엉~엉~빨랑~)
	부정적 신체	적극적: 때리기·공격하기·밀기와 같이 공격적인 신체적 싸움과 관련된 행동 (예: 동생 때리기)
		소극적: 물건뺏기·훼방 등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 (예: 형의 빼빼로 뺏어 도망가기)
	회피	갈등 상황을 무시, 무관심, 떠나기 (예: 다른 방으로 가버림)

<표 3> 어머니 개입 시 형제갈등 종결과정의 범주 및 정의

범 주	정의 및 예
어머니 종결	어머니의 개입 후 바로 갈등이 종결되는 경우 (예: 서로 봉지를 버린다고 싸우는 경우, 어머니가 한 명에게 버리라고 명령해서 종결됨)
어머니 자녀 논쟁 후 종결	어머니가 개입함으로써 형제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머니와 한 자녀 또는 각 자녀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이 종결되는 경우 (예: 서로 놀이감을 가지겠다고 싸우는 경우, 어머니가 언니에게만 양보하게 하고, 언니는 왜 자신만 매일 양보하느냐고 불만에 차서 양보하여 종결됨)
어머니 개입이 있는 유아종결	어머니가 개입한 후, 형제간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경우 (예: 서로 큰 것을 가지겠다고 싸우는 경우, 어머니가 두 형제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어 갈등이 종결됨)

(1999)가 사용한 갈등 종결과정을 근거로 어머니의 개입에 따른 형제갈등 종결과정의 범주를 정하였다. 어머니가 개입하는 경우 형제갈등 종결과정의 각 범주별 정의와 실례는 <표 3>과 같다.

어머니 개입시 형제간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종결 유형 별로 유아가 어머니에게 사용한 전략 또는 형제간에 사용한 전략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어머니-자녀 논쟁 후 종결 유형의 경우, 어머니가 개입한 후 유아가 어머니에게 사용한 전략을 살펴보았다. 또, 어머니 개입이 있는 유아 종결의 경우, 어머니가 개입하기 전과 후에 형제가 서로에게 사용한 전략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어머니가 어떤 해결 전략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Perozynski와 Kramer(1999)가 개발한 어머니의 개입전략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형제 갈등개입 전략은 도구 개발자의 제안에 따라 에피소드 단위로 분석하였다. 즉, 어머니가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서 한 가지 이상의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한 경우 빈번하게 사용된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하였다. 어머니 개입전략의 각 범주의 정의와 실례는 <표 4>와 같다.

<표 4> 어머니 개입전략의 정의와 실례

범 주	정 의
아동중심전략	형제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지원함
부모통제전략	형제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자녀들에게 해야 할 행동을 지시

<표 5> 형제갈등 종결유형의 범주와 실례

범 주	정의
타협	두 아이가 상호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발달돼 각 형제가 목표 중 적어도 일부를 성취한 갈등 종결(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너는 위를 가져. 난 밑을 가질게. 이렇게 자르자 알았지?)
화해	두 형제가 사과하거나 상호교환을 통한 갈등 종결 (예: "언니 같이 놀자"에 대해 "그래 이제 사이좋게 같이 놀자")
복종	그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는 언어적 또는 물리적 행동에 의한 갈등 종결 (예: "내 내가 ~아이씨" 하며 조정기를 바닥으로 밀어 다른 형제에게 줌)
해결 없음	형제 둘 다 명백하게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문제가 단순하게 사라져버리는 갈등 종결(예: 싸우다가 갑자기 그냥 나가 버림)

5) 갈등 종결유형

형제갈등의 종결유형은 Siddiqui와 Ross(1999)가 사용한 형제갈등의 종결유형을 사용하였다. 형제갈등의 종결유형 범주의 정의와 실례는 〈표 5〉와 같다.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유치원에 다니는 한 유아와 그의 형제(초등학교 3학년까지) 8쌍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연구 결과 첫째아이가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함께 놀기를 거부하거나 동생에게 양보하였기 때문에 첫째 형제의 연령을 만 5세(유치원)까지로 제한하였다. 유아가 3세에서 7세일 경우 형제간 갈등이 가장 빈번하다는 Kramer 등(1999)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정하기 위해 각 형제들이 각 활동을 시작해서 놀이에 열중하지 않거나 주어진 과제를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역할놀이 과제는 약 12분, 간식먹기 과제는 약 10분, 함께 놀기 과제는 약 5분, 그리고 스티커 나누기 과제는 약 5분이 소요되었다.

네 가지 과제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집에 있던 다른 놀이감도 함께 가지고 놀도록 허락한 경우 형제간 갈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된 놀이감만 가지고 놀도록 하였다.

2) 본 연구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가정에서 형제들이 평소에 놀이하는 공간에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특징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형제간 갈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실험실 상황(예: Ram & Ross, 2001)에서 이루어 졌으나, 어린이들은 실험실 상황에서 갈등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고, 엄마들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Washo, 1992)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자연스런 환경인 가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형제들에게 준비된 놀이감으로 어떻게 노는지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놀이감을 제공하였다. 어머니에게는 같은 방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제들을 도와주어도 좋다고 하였다. 과제수행 전 과정은 부모님의 허락 하에 녹화되었다.

3) 분석자간 일치도

예비연구시 녹화된 형제간 과제 수행을 전사하여 형제간 갈등 단위, 형제간 갈등해결 전략, 어머니 개입시 갈등종결과정, 어머니 개입전략, 그리고 갈등종결유형에 대해 분석자간 일치도 훈련을 실시하였다. 20개의 에피소드에 대한 에피소드 확인, 형제간 갈등 단위, 형제간 갈등해결 전략, 어머니 개입시 갈등종결과정, 어머니 개입전략, 그리고 갈등종결유형은 각각 95%, 90%, 78%, 84%, 그리고 81%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의 분석

159회의 갈등 중 99회(62.3%)는 어머니의 개입없이 갈등이 해결되었고, 60회(37.7%)는 어머니의 개입으로 갈등이 해결되었다. 따라서 이 후 제시된 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어머니가 개입한 60회의 갈등을 기초로 분석된 것과 어머니가 개입하지 않은 99회의 갈등을 기초로 분석된 것으로 나누어진다. 형제간 갈등에의 어머니 개입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개입한 갈등 자료만을 활용하였고, 어머니 개입에 따른 형제간 갈등의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개입하지 않은 갈등 자료도 활용하여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형제간 갈등에의 어머니 개입양상

어머니들은 159회의 갈등 중 99회(62.3%)는 개입하지 않았고, 60회(37.7%)는 개입하였다. 유아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어머니가 가장 많이 개입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이 하나의 놀이감으로 놀기와 사물나누기 과제 시 가장 빈번하게 개

입했다.

다음으로 형제간 갈등 시 어머니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개입 시 형제갈등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 종결은 18회(30.0%), 어머니-자녀 논쟁 후 종결은 26회(43.3%), 어머니 개입이 있는 유아종결은 16회(26.7%)이었다. 갈등종결 방식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종결'은 어머니가 싸움을 그치라고 하거나 형제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자녀가 어떤 전략도 사용하지 않고 갈등이 종결된다. 이는 어머니가 형제들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갖도록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자녀 논쟁 후 종결'은 어머니가 개입한 후 형제간 갈등이 어머니와 자녀사이의 논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어머니와의 논쟁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지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총 26회의 '어머니-자녀 논쟁 후 종결' 시 다양한 전략을 126회 사용하여 유아 당 평균 4.8개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주목할 것은 자녀들이 소극적/부정적 언어적 행동으로 어머니에게 많이 반응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들이 어머니와의 논쟁에서 울거나 징얼거리기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여 건설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어머니 개입이 있는 유아종결'은 어머니가 개입한 후 형제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개입하기 전과 후에 형제가 사용한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 본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가 개입하기 전보다 후에 형제가 사용한 전략의 수가 38회에서 60회로 약 63.3% 증가하였다. 또한 형제가 사용하는 전략도 달라져 어머니가 개입하기 전에는 형제 모두가 건설적-건설적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부정적-부정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개입한 이후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형제 모두

〈표 6〉 갈등과제에 따른 어머니의 개입

빈도(%)

빈도 \ 과제	간식먹기	역할놀이하기	하나의 놀이감으로 놀기	사물나누기
갈등빈도	64(100.0)	25(100.0)	46(100.0)	24(100.0)
어머니개입빈도	10(15.6)	10(40.0)	26(56.5)	14(58.3)

〈표 7〉 어머니-자녀 논쟁 후 종결에서 유아가 어머니에게 사용한 전략

전략	정당화	정교화	제안	따르기	권위에 호소	단순한 거부	행동의 유보	부정적 언어적 행동		부정적 신체적 행동		회피	계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빈도	18	13	3	7	4	16	0	9	38	1	3	14	126
(%)	(14.3)	(10.3)	(2.4)	(5.6)	(3.2)	(12.7)	(0.0)	(7.1)	(30.1)	(0.8)	(2.4)	(11.1)	(100)

〈표 8〉 어머니 개입 전후에 형제가 사용한 전략

빈도(%)

첫째/둘째의 전략		건설적-건설적*	건설적-부정적	부정적-부정적	총계
어머니 개입	전	8(21.1)	10(26.3)	20(52.6)	38(100.0)
	후	22(36.7)	23(38.3)	15(25.0)	60(100.0)

$\chi^2_{(2)} = 9.97$, $p < .01$

* 건설적-건설적은 형제 중 한 명이 건설적 전략을 사용했을 때 다른 형제도 건설적 전략을 사용했음을 의미함.

가 부정적-부정적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건설적-건설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개입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살펴 본 결과, 아동중심 전략은 16회(26.7%) 사용하였고 부모통제 전략은 44회(73.4%)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 개입에 따른 형제갈등의 종결양상

먼저, 어머니의 개입유무에 따라 형제갈등의 종결이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표 9〉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 복종, 해결 없음, 화해, 타협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개입한 경우는 복종, 화해, 해결 없음, 타협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복종이 어머니 개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해결 없음은 어머니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가 어머니가 개입한 경우보다 적게 나타났고 화해는 더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개입할 경우 형제갈등 종결 중 해결 없음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사용한 전략에 따라 형제간 갈등의 종결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본 결과, 〈표 10〉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0〉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동중심전략을 사용한 경우 갈등종결이 화해, 복종, 타협, 해결 없음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부모통제전략을 사용한 경우는 복종, 화해, 해결 없음, 타협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동중심전략을 사용한 경우 화해와 타협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어머니가 부모통제 전략을 사용한 경우 복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부모통제전략을 사용할 때보다 아동중심전략을 사용할 때 갈등이 타협과 화해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형제간 갈등에의 어머니 개입양상

본 연구결과 형제간 갈등의 38% 정도에만 어머니가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하였다. 이 결과는 형제간 갈등의 45% 정도에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Kramer 등(1999)의 연구결과 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적게 개입한 것은 연구대상 형제의 연령이 Kramer 등(1999)의 연구대상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Kojima(2000)의 연구에서도 형제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덜 개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하나의 놀이감으로 놀기'와 '사물나누기' 과제 시 가장 빈번하게 개입했다. 이 결과는 유아들이 '사물'에 대한 갈등을 빈번히

〈표 9〉 어머니의 갈등 개입 유무에 따른 형제갈등의 종결

빈도(%)

개입 유무 \ 갈등종결유형	타협	화해	복종	해결없음	계
어머니 개입 무	5 (5.1)	21 (21.2)	45 (45.5)	28 (28.2)	99 (100)
어머니 개입 유	3 (5.0)	21 (35.0)	31 (51.6)	5 (8.4)	60 (100)
$\chi^2_{(3)}=14.23$, $p<.001$					

〈표 10〉 어머니의 전략에 따른 형제갈등의 종결

빈도(%)

어머니 전략 \ 갈등종결유형	타협	화해	복종	해결없음	계
아동중심전략	4 (28.6)	6 (42.9)	2 (14.3)	2 (14.2)	14(100.0)
부모통제전략	1 (2.2)	13 (28.3)	29 (63.0)	3 (6.5)	46(100.0)
$\chi^2_{(3)}=16.14$, $p<.001$					

일으키고 스스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 (Shantz, 1987; Shantz & Hobart, 1989)때문에 어머니들이 더 빈번히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개입방식을 살펴보면, '어머니-자녀 논쟁 후 종결', '어머니 종결', '어머니 개입이 있는 유아종결' 순으로 일어났다. 주목할 것은 '어머니-자녀 논쟁 후 종결'과 '어머니 종결'이 전체의 73.3%에 달한다는 것이다. Siddiqui와 Ross (1999), Washo(1992)도 언급하였듯이, 이 두 유형의 종결과정은 자녀에게 갈등을 통해 사회·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형제간 갈등 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가장 바람직한 개입방법이라고 여겨지는 '어머니 개입이 있는 유아종결'은 27%정도의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비록 어머니들이 가정 적게 사용한 종결과정이지만, 어머니의 개입 전과 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개입 전과 비교하여 볼 때, 개입 후에는 형제가 사용한 전략의 수도 63%정도 증가하였고 바람직한 전략의 사용은 증가한 반면 부정적인 전략의 사용은 감소하였다. 어머니 개입 후 유아가 사용한 전략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상호작용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Kramer 등(1999)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며, 부모가 형제간에 갈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때 형제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어머니 개입 후 형제가 긍정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도 Dunn과 Munn(1986), Siddiqui와 Ross(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어머니 개입이 있는 유아종결' 유형이 유아의 사회·인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의 개입이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본 연구 대상의 부모들은 아동중심 전략보다는 부모통제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Brody, Stoneman, & MacKinnon, 1986; Howe, et. al., 2001; Siddiqui & Ross, 1999)가 부모가 긍정적 또는 아동 중심적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때 형제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과 형제관계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보고한 것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을 통해서 형제간 갈등에 부모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2. 어머니 개입에 따른 형제갈등의 종결양상

어머니가 형제간 갈등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형제간 갈등이 종결되는 방식이 달라졌다. '복종'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가 개입할 경우 '해결 없음'으로 종결될 비율은 매우 낮아졌고 화해는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개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복종'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형제간 힘의 차이, 어머니 개입시의 갈등 종결과정의 특성과 어머니가 사용한 전략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개입이 없을 때는 형제간 힘의 차이 (Siddiqui & Ross, 1999; Telsa & Dunn, 1992) 때문에 동생이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복종'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어머니 개입의 갈등종결과정으로 '어머니 종결'과 '어머니-자녀 논쟁 후 종결'의 사용이 73%를 넘었고, 어머니가 개입했을 때는 '부모통제 전략'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복종'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개입할 경우 '해결 없음'으로 갈등이 종결되는 빈도가 낮아지는 것은 어머니가 개입해서 어떤 식으로는 결론을 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andell과 Bailey(1992)의 연구에서도 형제들끼리 갈등을 해결할 때는 갈등을 흐지부지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서도 형제간 갈등이 종결되는 방식이 달라졌다. 어머니가 '부모통제전략'을 사용할 때보다 '아동중심전략'을 사용할 때 갈등이 타협과 화해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바람직한 전략을 사용할수록 갈등의 해결과 형제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Brody 등(1986)과 Siddiqui와 Ross(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가 긍정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개입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부모가 사용하는 전략이 긍정적인 모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Crockenberg & Lourie, 1996)하고, 다른 학자들은 어머니가 아동중심전략을 사용할 때 조망수용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Dunn, Brown, Beardsall, 1991)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개입유무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통제전략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형제간 갈등에 비교적 적게 개입하였으나, 개입했을 경우 해결 없이 갈등이 종결되는 경우가 더 적었다. 그러나 개입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과 전략을 사용해서 개입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어머니 있는 유아종결' 방식이나 '아동중심 전략'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였다. 적은 수의 경우지만, 바람직한 방식으로 개입했을 때는 갈등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식되는 '어머니 개입 있는 유아종결'시 자녀간 상호작용이 길어지고, 건설적-건설적 전략 사용이 증가하며, 부정적-부정적 전략 사용이 감소했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중심 전략을 사용할 때 형제간에 타협과 화해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나이가 어린 형제를 둔 부모에게 형제간 갈등에 개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개입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부모교육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어머니였다. 그러나 Kramer 등(1999)은 부모의 성에 따라 자녀간 갈등에 개입하는 양상이 달랐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들은 오빠와 여동생간의 싸움에 통제전략을 더 빈번히 사용했다. 최근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사회적 경향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개입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둘째, 형제의 출생순위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들은 형과 동생이 가진 힘과 지식의 차이 때문에 형제간 갈등에 개입할 때 형제 모두에게 같은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Kojima(2000)의 연구에서 부모는 형에게 동생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와 현재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동생에게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사회·인지적 능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형제의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이런 것을 고려하여 형제간 갈등에 개입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이윤주(2000). 형제간 갈등에 대한 어머니의 해결전략과 신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rody, G., & Stoneman, Z, (1987). Sibling conflict: Contributions of the sibling themselves, the parent-sibling relationship, and the broader family system. *Journal of Children in Contemporary Society, 19*, 39-53.

Brody, G., Stoneman, Z., & MacKinnon, C. (1986). Role asymmetries in interaction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ir younger siblings, and their friends. *Child Development, 53*, 1364-1370.

Brody, G., Stoneman, Z., McCoy, J., & Forehand, R. (1992). Com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association of sibling conflict with family relationship assessment and family discussion about sibl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63*, 391-400.

Corter, C., Abramovitch, R., & Pepler, D. (1983). The role of the mothers in sibling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4*, 1599-1605.

Crockenberg, S., & Lourie, A. (1996). Parents' conflict strategies with children and children's conflict strategies with peers. *Merrill-Palmer Quarterly,*

42(4), 495-518.

Cummings, E.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functioning. *Social Development, 3*, 16-36.

Dunn, J. (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787-811.

Dunn, J. (1988). *The beginning of social understand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Dunn, J., & Munn, P. (1986). Sibling quarrels and maternal interven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nd aggression.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7(5)*, 583-595.

Dunn, J., & Munn, P. (1987). Development of justification in disputes with mother and sib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91-798.

Eisenberg, A.,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Feiring, C., & Lewis, M. (1978). The child as a member of the family system. *Behavioral Science, 23*, 225-233.

Felson, R., & Russo, N. (1988). Parental punishment and sibling aggress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 11-18.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56*, 448-461.

Furman W., & Giberson, R. (1995). Identifying the links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In S. Shulman (Ed.), *Close relationships i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orwood, NJ: Ablx.

Gelles, R., & Cornell, C. (1990).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Newbery Park, CA: Sage.

Howe, N., Aquan-Assee, J., & Bukowski, W. (2001). Predicting sibling relations over time: Synchrony between maternal management styles and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Merrill-Palmer Quarterly, 47(1)*, 121-141.

Kojima, Y. (2000). Maternal regulation of sibling interactions in the preschool years: Observational study in Japanese families. *Child Development, 71(60)*, 1640-1647.

Kramer, L., Perozynski, L., & Chung, T. (1999). parental responses to sibling conflict: The effects of development and parent gender. *Child Development, 70(6)*, 1401-1414.

Lamb, M. (1978). Interactions between 18-month-olds and their preschool aged siblings. *Child Development, 49*, 51-59.

Laursen, B., Hartup, W., & Koplas, A. (1996). Toward understanding peer conflict. *Merrill-Palmer Quarterly, 42(1)*, 76-102.

Miller, J. (1993). Learning from early relationship experience. In S. Duck (Series Ed.),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 Vol. 2.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pp. 1-29). Newbury Park: Sage.

Munuchin, P. (1988).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A systems perspective on development. In R. Hinde & Stevenson-Hinde(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Clarendon Press.

Patterson, G. (1982). *A social learning approach: Vol. 3.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Perlman, M., & Ross, H. (1997). The benefits of parent intervention in children's disputes: An examination of concurrent changes in children's fighting styles. *Child Development, 64(4)*, 690-700.

Perozynski, L., & Kramer, L. (1999). Parental beliefs about managing sibling conflict.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489-499.

Phinney, J. (1986). The structure of 5-year-olds' verbal quarrels with peers and sibling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7*, 47-60.

Ram, A., & Ross, H. (2001). Problem solving,

contention, and struggle: How siblings resolve a conflict of interests. *Child Development, 72(60),* 1710-1722.

Richman, N., Stevenson, J., & Graham, P. (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ral study.* London: Academic Press.

Rinaldi, C., & Howe, N. (1998). Siblings' reports of conflict and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4(3),* 404-422.

Ross, H., Filyer, R., Lollis, S. P., Perlman, M., & Martin, J. L. (1994). Administering justice in the famil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3),* 254-273.

Shantz, C. (1987). Conflicts betwe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283-305.

Shantz, C., & Hobart, C. (1989).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Peer and siblings. In T. Berndt, & G.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71-94). New York: Wiley.

Siddiqui, A., & Ross, H. (1999). How do siblings conflicts end?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0(3),* 315-330.

Tesla, C., & Dunn, J. (1992). Getting along or getting you own way: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use of arguments in conflicts with mother and sibling. *Social Development, 1,* 107-121.

Valsiner, J., & Cairns, R. (1992). Theoretical perspectives on conflict and development. In C. Shantz &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 15-3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dell, D., & Bailey, M. (1992). Conflicts between siblings. In C. Shantz, &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242-27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sho, C. (1992). Parental strategies for managing sibling confli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2002년 7월 30일 접수, 2002년 11월 29일 채택)